

총간소음 분쟁 풀릴까

■ 광주 광산구, 첫 '공동주택 관리 준칙' 개정·고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 소음발생땐

민원 접수 후 1·2·3차 걸쳐 조정·중재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총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광산구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총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기존 '공동주택 준칙'이 총간 생활 소음의 기준 및 해결방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을 해

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개정 '공동주택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법적대응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총간소음 분쟁이 핵심으로 되는 공동체 불편과 공동주택 소음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는 만큼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체 형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주민이 공동주택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 관심사에 함께 참여하여 신뢰를 쌓는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 형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뇌수막염 예방접종

내달부터 비용 지원

보건부·질병본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부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뇌수막염과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영유아 시기에 받는 예방접종이 유일하다.

그동안 Hib 백신의 접종비용은 전액 보호자 부담이었지만 3월부터 정기예방접종에 포함해 정부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이번 조처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정부 지원혜택을 받는 백신은 11가지로 늘어난다. 거주지의 필수예방접종인부당금 지원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장담그기 좋은 날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오후, 우수(雨水) 전후에 장을 담그는 풍속에 맞춰 강진군 군동면 된장마을의 아낙네들이 잘 뛰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인사시스템 뒷말 무성

정책기획 장학관 공모에 '내정설' 파다… 응모자 되돌아가기도

광주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문책 대상이 영전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모 때마다 인사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 공모에서는 한 응모자가 면접심사를 앞두고 되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교육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에 이재남 윤봉초 교사는

임명했다.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은 정책기획관 밑에서 광주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추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감 최측근 인사로 배치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 자리는 공모 하지 않고 교육감이 임명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아래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쳤다. 전교조 출신을 발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

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공모과정에서 '내정설'이 과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교사를 포함해 고작 2명만이 지원했다.

다른 지원자는 면접 심사장에게까지 왔다가 이 교사가 응모한 것을 확인하고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는 이 교사의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 임명에 대해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판받았던 '불통'이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등을 지낸 전교조 학심간부다. 특히 '정책' 개발보다는 '행동'하는 스타일로 전교조 내부에서도 초강성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 이외에도 전교조 간부출신 교사들이 정책기획관 산하의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설립을 전담할 팀에 대거 영입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안팎이 더욱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유치원장, 초·중등학교 교장, 장학관 등 8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이날 단행했다. /영단 18면 /박정욱기자 jwpark@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번 인사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도교육청에 협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학운위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 다른 기관들로 많은데 왜 하필 학교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 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자구 세정아울렛 3층]

062) 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 521-2100

로얄관광여행사
[순천 성동초교 로터리]

061) 753-6788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당병원]

061) 287-4100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4월 01월 ~ 5월 1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총 14회)

장가계 직행!

[CJPF01-FM1]

장가계 / 월가계 4일 / 5일 *호텔그레이드*

849,000원~

*특산: 삼계탕, 무제한 오리 전골

*특전: 천문관·한문화관·기념관

*특전: